

2020 새 설계

권오봉 여수시장

“경제 활력 확산·관광콘텐츠 확충...살기좋은 여수 만들 것”



“시민 모두가 행복한 최우선 민생인 경제 활력 확산 등 핵심 정책을 새해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수미래 발전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0년 시장 방향을 경제 활력 확산, 관광콘텐츠 확충, 국제화 기반 조성, 시민 안전, 생활밀착형 복지 구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여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또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2035 여수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사업 이행률을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새해 최우선 시장 역점 실행계획인 산업경쟁력 뒷받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오는 2025년까지 GS 갤럭시 등 오는 2025년까지 여수국가산단 16개 기업에서 약 9조 5000억원의 공장 신·증설이 예정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산단 근로자의 주거와 교통편의 제공에 힘쓰는다는 계획이다.

COP28 유치·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시립박물관 건립·경도 개발 등 박차 구석구석 복지·낙후지역 도시재생

이와 함께 권 시장은 여수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지속해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완료될 예정인 관광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 여수시립박물관 사업과 경도관광단지 개발,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유치, 시민불편대책반 운영, 주차장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또 국내관광 중심도시를 넘어 여수의 국제화 지향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COP28(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특히 여수박물관 사후활용을 위해 민자를 유치해 국제컨벤션센터를 조기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국제컨벤션센터는 애초 전남도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려 했지만 정부정책인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국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며 “컨벤션센터 건립에 1000억원이 넘는 큰 예산이 필요한 만큼 오는 2022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민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2022년 건립을 목표로 행정력을 모두 쏟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시민안전에 관한 산단안전 총괄부서인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석유화학 안전체험장 건립, 사업장 감시관리와 악취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 대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권 시장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활 곳곳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웅천지구 용·복합단지 기능을 살리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구현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제·죽림지구, 만흥지역 등을 택지 개발하고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살기 좋은 여수를 조성할

2020년 주요 사업은

- ▲산업경쟁력 뒷받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
- ▲여수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콘텐츠 확충
-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활 밀착형 복지 구현
- ▲COP28 유치 등 국제행사 개최에 만전
- ▲시민 청원제도과 사랑방 좌담회, SNS 여수 이야기 등 소통 통로 활성화

방침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민선 7기 핵심 사업 추진과 함께 시민 청원제도 및 사랑방 좌담회, SNS 여수 이야기 등 소통 활성화와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등으로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COP28 유치와 컨벤션 센터 건립 등 박물관 사후활용 활성화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훈훈한 여수...주민센터에 두고 간 ‘사랑의 저금통’

여수의 한 주민센터에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돼지 저금통(사진)을 두고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만덕동 주민센터 현관에 한 중년 여성이 금색 보자기로 싼 빨간 돼지 저금통을 두고 갔다.

이 여성은 돼지 저금통과 함께 쪽지에 간단한 사연을 적었다.

쪽지에는 “얼마 모이지는 않았지만, 손주가 유치

원, 초등학교 다닐 때 한자나 한글을 쓰면 100원씩 넣어 주었다”며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적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돼지 저금통을 열어 확인한 결과 만원권 지폐 3장과 10원부터 50원, 100원 등 동전까지 가득 들어 있었다.

저금통에 든 현금은 25만원이었으며 주민센터 측은 만덕동 공동모금회 계좌에 입금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착한 세상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금통을 열어 동전을 세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며 “따뜻한 마음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사업비 22억 투입 주택 702동 슬레이트 철거 나서

여수시는 사업비 22억여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 규모는 총 702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55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53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99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주택이 대상이며, 1가구당 120㎡ 기준 344만 원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또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 53가구는 슬레이트 처리비와 지붕 개량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주택이 아닌 슬레이트 건축물도 사업 대상에 포함돼 172만 원까지 사업비가 보조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우선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역 MBC 3사-디오션리조트 ‘화양 비치리조트’ 건립 공동 투자 협약식 열어

남해안 최대 명품 종합해양휴양시설인 여수 디오션이 화양 비치리조트 사업 투자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7일 여수디오션에 따르면 여수·경남·광주 문화방송 3사와 디오션리조트가 6일 디오션 호텔에서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에 들어설 화양 비치리조트 건립에 대한 공동 투자 협약을 가졌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유광현 여수디오션 부사장과 홍순관 여수 MBC사장, 여수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여수시 화양면 장동 해수욕장 인근 7만4000㎡의 부지에 오션 뷰를 자랑하는 270실 객실과 세계에서 가장 긴 170m 규모의 루프 탑 인피니티 수영장을 갖춘 비치리조트가 건립된다.

특히 1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화양 비치리조트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될 경우 명품 골프장인 디오션 컨트리클럽 9홀 추가 증설도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력 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돌산 화대와 화양 백야, 고흥을 잇는 국도 77호선(11개의 연륙교) 개통으로 남해안 관광 지도 중심에 위치한 화양 비치리조트와 디오션 골프장은 여수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 동력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현 여수디오션리조트 부사장은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인 화양면 장수리에 세계에서 가장 긴 최고 인피니티 풀과 명품 객실을 갖춘 비치리조트 건립으로 여수와 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세일골

“유기적·체계적 현장 대응으로 안전한 여수”

김창수 여수소방서장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시민과 국민을 위한 소방·방재 업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제 42대 여수소방서장으로 취임한 김창수 서장은 “직원들 모두 함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소방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펼쳐 가겠다”며 “더불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 출신인 김 서장은 지난 1999년 제11기 소방간부 후보생으로 입문, 전남소방교육대장과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김 서장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중심으로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통솔력을 두루 갖춘 지휘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노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슬라에너지